나혜석의 예술혼 느껴보세요

수원포교당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 개최

한국 최초의 여류서양화가이자 문필가, 여성해방운동가인 나혜석(1896~1948)을 추모하고 청소년들에게 순수예술의 멋과 맛을 일깨워주기 위한 '제1회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가 11월 8일, 9일 양일간 열린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주최하고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수원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예술제는 나혜석이 프랑스 유학 후 첫 개인전시회를 열었던 수원포교당 일대에서 천도재, 시화전, 청소년 미술공모전, 연극제, 추모음악회, 사생대회 등의 청소년 참여행사들로

프랑스 유학후 첫 개인전 연 곳

천도재, 미술전등 참여행사 다채

다채롭게 꾸며질 계획이다.

천도재는 말년에 행려병자로 불행한 생을 마친 나혜석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술계 관계자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3시 수원포교당 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미술공모전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서양화에 관계없이 '양성평등과 자화상, 도심 속에서 자연'을 주제로 8일 수원포교당 경내에서 열린다. 사생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4개 파트로 나눠 현재 응모를 받고 있으며, 수상작들은 청소년들의 시화전과 함께 예술제 기간동안 수원포교당 경내에서 전시된다. 사생대회의 최고입상자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이밖에 각 파트별 1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 교육감상 등의 으뜸상이 각 파트별 2명에게는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상과 파라미타 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성관스님은 "예술제는 수원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예술적 가능성을 키워주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화수류정부터 수원포교당을 잇는 수원천변의 나혜석 거리에 나혜석 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수원문화계와 불교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혜석은 말년에 해인사, 수덕사 견성암에 주석하던 비구니 일엽스님을 찾아가 10여년 동안 작품생활을 하며 불교의 진솔한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031)253-0108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가을정취와 함께 역사 배우기"

강화 전등사 10월 17~19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외규장각도서 반환기원 음악회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역사의 깊이도 배울 수 있는 축제가 있다. 10월 17~19일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 일대에서 펼쳐지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도서 반환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00년 시작된 축제. 올해는 특히 전통과 역사, 문화를 담아낸 상설전시행사가 풍성하다.

전등사 적묵당 앞에서는 100여 년 전의 본산과 현재 본사의 가람배치나 규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문헌과 자료 조사를 토해 찾아낸 1920년대 31본산의 원경 사진 31점을 전시하는 '조선사찰 31본산 사진기획전'(상설전시)은 이미 1일부터 시작됐고, 17~3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사진기획전'이 열린다. 강설당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는 '100년 전 전등사 사진기획전'도 둘러봄직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원판 사진을 복원해 낸 것으로, 1920년대 대웅보전 사진을 보면 주련 없이 기둥에다 바로 글씨를 쓴 점이 흥미롭다.

이밖에도 오대산 상원사동종의 '주악비천상', 해남 대흥사 함월스님 탑비 뒷면의 '달의 전설' 등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를 탑본하여 전시하는 '전통문양을 찾아서'(10월 17~22일, 야외갤러리), 인천·강화 지역의 대표적 불교문화재를 담아낸 '사찰의 역사를 찾아서'(10월 1~30일, 대조루 앞), '이여영의 사찰음식 사진전'(삼랑성 가궐터 상설전시) 등이 마련돼 있고, 18일에는 외규장각도서 반환 기원 음악회와 영산회상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32)937-0125

권형진 기자

실천승가회, 캄國 텝퐁 종정 친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 캄보디아 지원단 18명은 10월 1일 캄보디아 제1종정 텝퐁 스님을 친견하고 양국불교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텝퐁 스님이 주석하는 왓 우랄놈 사원에서 이뤄진 친견에서 성관 스님(지원단 단장)은 "캄보디아 고아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방문했다" 밝히고, 한·캄보디아 불교 교류를 위해 텝퐁 스님의 2004년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텝퐁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캄보디아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스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건립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실천승가회는 9월 30일 컴퓨터 55대와 생필품(속옷 100점, 세면도구 100세트)을 캄보디아 국방부 합참본부와 국가관광위원회에 각각 전달한데 이어 1일 문화종교부에 컴퓨터 20대와 생필품 130세트를 전달했다.

캄보디아=남동우기자

UCLA 대학, 한국불교문화 공연

미국 UCLA 대학 세계민속춤연구소(World Ethic Dance Institute)는 9월 25일 미국 로스엔젤리스의 박물관(LACMA)내 Leo S. Bing 극장에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배워보는 '한국 불교 문화, 음악과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와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천년만세' '침향무' '상영산' '승무' 영산재' 등을 비롯 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인 법현 스님의 범패 공연 등이 실연됐다.

또 26일에는 한국 불교 음악과 춤과 과에 관련한 워크숍을 열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인제, 한용운 스님 추모 전시회

인제거리문화추진위원회(회장 김신향)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한용운 스님 추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신경림 민영 김규동 곽재구 박노해 시인 등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된다. 문의(033) 461-3437

한편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법장 조계종총무원장)는 9월 23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담사 만해마을 개관 기념 인제군민 초청 만찬회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절 살림도 집안 살림처럼"

포천 미륵사 유병란·신재옥 보살

"아니, 무슨 애가 저렇게 김치를 잘 먹어요?" "우리 용환이는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그냥이에요. 김치가 떨어져서 아침에 안 줬더니 '엄마, 김치 없어?' 하고 찾더라고요." "그럼, 갈 때 김치 좀 가져가세요."

올해 7살 난 용환이를 포천 미륵사 주지 성광 스님은 '미륵사 아들'이라고 부른다. 용환이 엄마 유병란(43) 보살이 미륵사에 다니고 나서 본 늦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절에 오면 법당에도 먼저 들어가서 삼배하고 저보고도 '엄마도 절해' 그런다니까요."

절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은 유 보살도 마찬가지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지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엉킨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속상해도 오고 기분 좋을 때도 찾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제가 없으면 용환이 아빠는 으레 절에 갔겠구나 하고 여기로 전화를 할" 정도다. 용환이 아빠? "수도가 고장 나거나 전기 끊길 때도 용환이 아빠가 와서 다 고쳐줄 정도로 절일을 많이 챙겨주세요." 6년째 미륵사에서 주지 스님을 돕고 있는 진영 법사가 옆에서 슬쩍 거든다.

주지스님 도와 15년째 불사 중

매일 아침 절하며 하루 시작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3리. 앞들이 확트인 수원산 줄기에 자리 잡은 미륵사는 15년째 불사 중이다. 불사금 모이면 포크레인 불러 땅 한 번 고르고, 부처님 한 분 모시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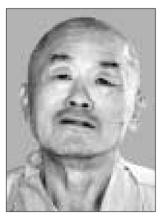
신재옥(62) 보살은 성광 스님이 88년 이 곳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다. 그 때는 미륵불 하나 덩그러니 모셔져 있을 때였는데, 남편 유윤종(68) 거사가 약수 뜨러 왔다 미륵불을 보곤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백일기도를 하면서 주지 스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 "요즘도 혼자서 일을 다 하시니까 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살림이 좀 넉넉하면 스님 불사 하시는 데도 도움을 좀 많이 주

◇포천 미륵사에는 절 살림이 곧 집안 살림인 신자들이 많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병란·신재옥 보살과 유윤종 거사.

고 싶은데…." 신 보살의 얼굴에 근심 한 줄기가 스쳐간다.

미륵사는 일 년에 네 번 정기 법회가 있을 뿐 그 흔한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도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절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면 되는 거지 초하루, 보름 때만 기도하란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세요."(유 보살)

포천=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성광스님 미륵사 주지

배우려는 열의 대단

유병란, 신재옥 보살은 절 근처에 사시기도 하지만 두 내외가 다 절일을 내 집 살림같이 챙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절은 초하루나 보름 법회가 없는데도 수시로 절을 찾아 기도하고, 절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라치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신도라기 보단 한 식구 같은 분들이죠. 조그만 것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는 열의도 대단합니다. 보살님 같은 분들은 미륵사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앞축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卍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님들의 필수 만행화 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